나를 뛰어넘다
Smart 동강대학
http://www.dkc.ac.kr 062-520-2552~5 SMART 동강대학

光州日報

아파트 담보대출 시세 90%까지
DAYOU 대유와 함께 빛이나는
스마트저축은행
www.smartbank.co.kr 대표전화 1577-3800

광주 25/31℃ 목포 25/30℃ 여수 25/28℃

단기 4344년 (음력 6월 28일)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광고 문의 (062)227-9600
kwangju.co.kr
제19027호 1판 2011년 7월 28일 목요일

26일부터 이틀간 서울에 내린 500㎜ 이상의 폭우로 강남과 광화문 등 시내 중심부 지역을 비롯해 주요 간선도로와 저지대 주택가가 물바다로 변했다. 27일 오후 서울 방배동 남부순환로에서 구조대원들이 복구작업을 벌이고 있는 모습을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이날 일어난 우면산 산사태로 방배동 일대가 큰 피해를 입었다. /연합뉴스

한나라당, 노골적 호남 포기

洪대표 지명직 최고 2명 충청권 인사 추천 당내 반발

이정현의원 "백주 대낮에 테러당한 기분"

광주·전남·전북 당위원장 공백도 방치

이명박 정부의 인사 및 주요 정책에 있어 호남 소외가 극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가운데 여당인 한나라당에서마저 호남이 사라지고 있다. 호남을 포기한 채 내년 총선과 대선을 치르겠다는 태도마저 엿보인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한나라당이 정치적으로 시도했던 '호남 구애'가 말뿐이었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3면〉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27일 주변의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지명직 최고위원 두 명을 홍문표 한국농어촌공사 사장과 정우택 전 충북지사 등 충청권 인사로 인선하려다가 그를 제외한 모든 최고위원의 반발로 무산됐다.

이같은 홍 대표의 생각은 그동안 당 약세 지역인 충청과 호남에 지명직 최고위원을 각각 한 명씩 배려하던 관례를 깬 것으로 내년 선거에서 충청권을 집중 공략하겠다는 의지의 표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개각을 하며 광주·전남지역 출신의 장관을 한 명도 배치하지 않은 인사정책과 맞물려 여권이 내년 총·대선을 앞두고 '호남 배제' 전략을 구체화 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호남에서 패배하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승리하면 된다는 전략을 세웠다는 것이다.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에서 호남 배제에 대한 우려는 이미 청와대 측에 전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 같은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나라당은 또 공석이 된지 1년이 된 광주시당·전남도당·전북도당위원장 선출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이렇다 할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어 지역민들로부터 "호남을 아예 머릿속에서 지워버렸다"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 6월2일 10개월여 만에 광주시당·전남도당·전북도당위원장 직무대행을 임명했지만 전당대회가 끝남과 동시에 직무를 정지시켜 시도당위원장 경선을 치르지 못하고 있다. 이날까지 서울·대구·울산·경기·강원·충북·제주 등 7개 시도당위원장이 확정되고 경북·인천·충남·부산·경남 등은 경선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지만 호남만은 방향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광주시·전남도당 관계자들은 "중앙당이 그동안 광주·전남·북 시·도당위원장직에 적합한 참신한 지역인재 영입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방치했다"며 "그나마 지난 2009년 5월 공모를 통해 영입한 광주시당·전남도당 사무처장도 2년여 만에 자르는 등 한나라당에서 호남은 계륵 취급을 받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한나라당 고위관계자도 "홍 대표가 호남을 빼놓고 가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 같은 당의 행태는 지역여당을 하자는 것"이라고 발끈했다.

같은 당 이정현 의원은 "내년 총선 광주 지역에서 당선을 목표로 뛰는 입장에서 홍 대표 발언을 들으니 백주 대낮에 테러를 당한 기분"이라며 "사실상 호남 포기 선언이자 전국 정당임을 부인하는 고약한 발언으로 호남에 사과하고 입장을 철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中部 폭우 수도 마비

500㎜ 기록적 비…곳곳 산사태 30여명 사망·실종

26일과 27일 중부지역에 최고 500㎜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30여 명이 사망하는 등 인명·재산피해가 속출했다. 〈관련기사 6·7·15면〉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5분께 서울 방배동 남태령 전원마을 등 서울 서초구 우면산 일대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16명이 숨지고, 2명이 매몰됐으며 9명이 다쳤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매몰된 2명을 구하기 위해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망자 대다수는 산사태로 쏟아져 나온 토사가 마을과 아파트를 덮치면서 매몰돼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날 0시 10분께 강원도 춘천 신북읍 천전리에서 산사태가 발생, 인근 펜션을 덮치면서 잠자고 있던 대학생 등 13명이 사망하고 24명이 부상했다.

경기도 광주에서는 곤지암천 범람 등으로 6명이 사망하고, 주민 대피령이 발령돼 100여 명이 몸을 피했다. 경기 가평군 청평에서는 방갈로 집기 정리를 하던 2명이 물에 휩쓸려 실종됐고, 서울 불광동 삼천사 계곡과 불광천 신응교 아래에서도 각각 1명이 실종됐다.

또한, 주택 침수나 산사태 우려 등으로 서울 241가구 360명, 경기 156가구 253명 등 401가구 62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이번 폭우로 전국 6만6093가구에 정전이 됐으며 서울 1만4083가구에는 아직도 전기가 들어오지 않고 있다.

서울 199채, 경기 517채 등 주택 720채와 차량 99대가 침수됐으며 농경지 36.3ha가 물에 잠겼다.

경춘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를 포함해 도로 25개 구간이 통제됐고 청계천과 한강 잠수교는 통행이 막혔으며 지하철 분당선과 중앙선(청량리~용산역) 운행이 중단됐다. 북한산과 설악산, 오대산, 치악산 등 6개 국립공원도 통제되고 있다. 한강 탄천(대곡교)와 중랑천 중랑교 부근은 홍수주의보가 발령돼 있다.

팔당댐과 소양감댐 등의 수위가 각각 24.54m와 191.59m로 만수위인 25.5m와 193.5m에 접근함에 따라 팔당댐은 1초당 1만5548t, 소양감댐은 1초당 1040t을 방류하고 있다.

한편, 26일부터 이날 오후 4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경기 하남이 513.0mm로 가장 많은 비가 내렸으며, 서울 431.0㎜, 인천 278.0㎜, 동두천 276.5㎜, 춘천 265.0㎜, 문산 264.0㎜ 등을 기록하고 있다. 기상청은 서울, 경기, 영서지역은 28일까지 비가 250㎜ 이상 더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연합뉴스

기아차 임협안 노조투표 부결

재협상 난항 예상

기아자동차 노사가 잠정합의한 사상 최대 성과급 지급을 내용으로 한 임금협약안이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됐다. 이로써 기아차는 임금 재협상이 불가피하게 됐고, 이 과정에서 노사-노노 간 혼란이 예상된다.

기아차는 27일 올해 임금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찬성 47%로 과반을 넘지 못해 부결됐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8면〉

노조 관계자는 "3만여명의 전체 조합원 가운데 90%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률 약 47%로 부결됐다"고 말했다. 광주공장은 찬성이 과반을 넘어 잠정합의안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잠정합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기아차는 임금 재협상이 불가피하게 됐다.

노조는 다음주 예정된 여름휴가를 다녀온 뒤 지부장 및 지회장 등이 대책회의를 열어 향후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기아차 노사는 지난 22일 기본급 9만원(5.17%) 인상과 성과·격려금 300%+700만원 지급, 자사주 80주 지급 등에 최종 합의했다. 임금 인상분과 성과·격려금은 역대 가장 큰 규모였다.

/박정욱기자 jwpark@

학교설립 57주년 (1954~2011)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 문의 학 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난동' 화순군의장 제명 요구

민주당 전남도당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이낙연)은 27일 화순군의원들의 난동사건 〈광주일보 22일자 1면〉과 관련해 당 소속 조유송 군의회 의장에 대한 제명 조치를 취해줄 것을 중앙당에 요구했다.

전남도당은 이날 윤리위원회를 열어 조 의장의 행위가 민주당의 명예와 이미지를 크게 손상한데다 형사적으로도 처벌받을 위법성이 높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징계 최고수위인 제명조치를 중앙당에서 취해 달라고 요구하는 제명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우윤근 윤리위원장은 "이번 사태는 매우 심각한 사태로,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하게 결정했으며 조 의장은 의원직을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중앙당은 다음 달 윤리위원회 징계심의와 당무위원회를 열어 조 의장에 대한 제명안건을 처리한다.

이에 앞서 조 의장 등 화순군의원 3명은 지난 20일 집행부의 인사에 불만을 품고 군청 총무과 사무실에서 안모 총무과장에게 욕설하고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난동을 피웠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의 새로운 명문 대학교
남부대학교
(062) 970-0114
꿈을 이루는 특성화 대학
전남과학대학
(061) 360-5050